

## 졸업생 소개

안녕하세요! 20학번 졸업생 유0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로컬 인공신장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병원 소개 및 업무 소개

인공신장실은 투석실(AKU)이라고도 하며 만성신부전환자들에게 혈액투석을 진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부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액투석은 혈액 속의 노폐물(섭취한 음식물의 대사산물)과 수분을 반투과막을 통해 여과하여 체외로 배설시키는 치료 방법인데요 투석실 간호사의 주요 업무에 대해 좀더 상세하게 말해볼게요.

### 1) 혈액투석

투석실 간호사의 제일 주된 업무는 혈액투석입니다.

환자는 1주일에 보통 2~3번 4시간에 투석을 받습니다. 투석실 간호사는 투석과정에서 이루어지는 needleing, 기계 작동, 적절한 약물주입, 기계에 알람 및 투석과정에서 응급상황을 대처하고 간호합니다.

즉, 투석에 시작부터 끝까지 투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 과정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 2) 혈관관리

혈관을 관리하는 업무는 투석실 간호사의 또 다른 업무 중 하나입니다.

혈액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혈류속도와 압력으로 혈액을 빼내고 넣어주어야합니다. 그러려면 투석기를 통하여 혈액이 흐르는 속도와 압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혈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말초혈관으로는 시행할 수 없어 인공적인 혈관 처치를 통해 일정한 혈류속도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큰 혈관을 만들어 투석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동정맥루(AVF: arteriovenous fistula), 인조혈관 (grat:AVG)입니다.

만성신부전 환자들에게 투석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투석은 앞서 말한 혈관에 needleing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석에 있어서 필수적이므로 투석 환자들에게 혈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혈관접근로를 needling 하기 전에 관찰하여 Thril, bruit를 확인하고 협착이 있는지 혈관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투석실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또한 환자가 혈관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간호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투석실 간호사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 3) 환자교육 및 관리

투석실 간호사의 또 다른 업무는 바로 환자를 관리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혈액투석은 기능이 떨어진 신장을 대신해서 체내에 쌓인 노폐물을 걸러내고 전해질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신대체요법입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24시간 동안 그 기능을 수행해 체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주지만 혈액투석은 보통 주 2~3회 실시하게 되므로 투석과 투석 사이에 노폐물, 수분 칼륨, 염분 등이 배설되지 못하고 체내 축적됩니다. 또한 투석은 1회 4시간 정도 받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석과 투석사이에 체내에 축적되는 노폐물, 수분, 칼륨, 염분 등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식이요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혈액투석을 함에 있어 적절한 식이요법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것은 투석실 간호사에 업무 중 하나입니다.

## 취업준비과정 및 조언

저는 환자 한명 한명에게 마음을 다 하는 간호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실습을 해보니 대학병원에서는 한 간호사당 맡아야 하는 환자 수가 많아 한정된 시간에 많은 업무량 수행해야 했고 무언가에 쫓기듯 행해지는 간호는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와는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복병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성격이었는데요. 내향적인 저의 성격에 몰아치듯 밀려왔다 나가는 환자와 매일 새로운 환자들을 받고 단기간에 쌓아야 하는 라포는 많은 부담이 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하는게 맞을까 고민하던 찰나 담당 교수님께서 인공신장실 부서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고 인공신장실로 취업 준비를 했고 기회가 되어 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선택에 만족하며 병원에 잘 다니고 있어요! 좀 있으면 1년을 맞이합니다. 저에게 이 일년은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깊습니다. 3~4학년 때 가지만 해도 이 직업을 못 할 줄 알았으니까요. 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후배님들이 취업에 쫓겨 이 직업을 선택한 이유를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간호는 승고한만큼 생각보다 고되고,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간호사라는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스스로에 만족감과 직업이 주는 자부심이 중요하고 그것은 간호사를 선택한 이유와 직결될 겁니다. 그러니 취업 전 실습을 하며 자신이 맞는 부서는 어디이고 학업 외에도 다양한 활동에 참가해 본인은 어떤 사람이고 자신이 추구하고 자 하는 간호는 어떤 것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후배님들 앞으로의 간호사에 날들을 응원합니다.